

과목 이수 후 영어 듣기 장애 요소와 전략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변화*

신희재
성결대학교

Shin, Hee-Jae. (2012). College students' changes in perception to English listening obstacles and strategies after a course. *Modern English Education*, 13(1), 189-209.

Listening comprehension is a challenging skill for foreign language learners to acquire, and for their teachers to teach effectively. This study looked into college students' changes in perception to English listening difficulties as well as their strategies in overcoming these issues, both prior to and after the course. The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forty-two participants majoring in different areas at a college. Th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surveys' statements by ranking their responses on a self-rated, five-point Likert type scale. In addition, eight students were interviewed to get information which was not covered in the questionnaire. Data analysis of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rough the course, the students' listen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were reduced in general, regardless of the students' level of listening proficiency. Furthermore, they felt that listening strategies were acquired to accomplish various listening tasks. However, the use of listening strategies associated with student internal factors, such as information processing, needs to be improved. These findings have pedagogical implications; English listening courses may be effective and a listening approach with strategy instruction is necessary for EFL/ESL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listening obstacles/listening strategies/
듣기이해력/듣기장애요소/듣기전략]

I. 서론

영어를 외국어로 또는 제2언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은 듣기입력(listening input)을 처리,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나, 시험의 상황과 같이 듣고 이해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변형된 어법이나 발음을 들을 때 듣기의 흐름을 놓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머리 속의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성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지식을 활성화시키지 못해 의미파악에 실패할 수도 있다.

듣기능력은 EFL/ESL 학습자들이 습득하는데 쉽지 않고 가르치기에도 가장 어려운 기술인지도 모른다. 청취한 내용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기술에서와 달리 분석하고 연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 가르치기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많이 듣도록 한 후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영어의 듣기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영어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듣기 기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통 속도로 읽는 내용을 청취할 때도 EFL/ESL 학습자들은 빠른 것으로 감지하는 경향이 있다(Renandya & Farrell, 2011). 영어듣기가 어려운 것은 첫째, 어휘가 스피치에서 사용될 때 음운론적 변화를 거쳐서 어떤 음이 탈락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소리가 첨가되기도 한다. 하나의 어휘만 발음할 때와 달리 문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발음되므로 학습자에게는 이 단어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둘째, 옆에 있는 단어와 합쳐져서 단어들을 독립적으로 명확히 감지하지 못하여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셋째,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다시 읽을 수 있는 읽기와 달리 듣기는 앞에서 청취한 내용을 놓치면 되돌아 갈 수가 없다. 이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어휘, 긴장감, 자신감의 결여, 배경지식의 부족, 문장의 이해능력 부족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

학생들이 듣기에 집중하도록 교사는 어휘, 문장구조, 소리의 음운론적 변이, 질문 미리 보게 하기, 듣기 관련 주제에 관한 배경지식 제공하기 등 다양한 듣기 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활동은 듣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현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듣는 도중 내용을 추론하고 그에 대한 예측까지 가능하게 하여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Mendelsohn, 1995). 또한 듣기 기술에서 상향식 하향식 접근법을 습득하여 문맥을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이며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EFL/ESL 교육현장에서 영어교육의 학습자료를 전보다 쉽게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고 학습내용을 편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의사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교사나 학습자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듣기의 경우 학습자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내려 받기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사들은 학습자가 영어듣기 향상을 위하여 전통적인 학습 공간을 넘어 자유로운 시간에 많은 다양한 주제의 다청(extensive listening)을 권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실제로 ‘영어듣기’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영어듣기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학습전략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학습전략이 이 과목을 이수하기 전과 이수한 후 듣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인식 변화에 대한 자료를 통해 듣기 학습에서 어려움이 극복된 부분과 여전히 취약한 영역이 파악되고, 듣기전략의 학습효과를 점검하면 향후 영어 듣기 과목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듣기를 위한 구성 요소

듣기능력이란 화자가 내보내는 구두적 신호를 청각적 입력으로 처리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청자의 적극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호를 더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은 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호해석을 개발시키는 것이 듣기의 필수 요건이다.

학습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기호해석 시 장애가 되는 동화, 발음의 생략이나 축소, 화자의 변이, 음절구조의 음소 등에 익숙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발음학습을 바탕으로 듣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듣기의 3가지 요소인 어휘이해, 문장구조분석, 그리고 기억처리가 필요하다(Cook, 2001). 어휘 이해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취한 단어를 우리의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시켜 점검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장구조분석이란 들려오는 문장의 문법구조와 의미에 관한 두뇌의 이해과정을 일컫는다. 우리가 문법상의 전문적인 분석 방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듣고 있는 동안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들은 내용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기억처리란 우리의 뇌에 기억된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때 청자가 능동적인 활동으로 구조 분석하여 상황의 문맥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 사회에 관한 배경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추론 같은 초인지적(metacognitive) 전략, 자신이 모니터링 하는 전략을 익히는 것이 학생들의 듣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Renandya & Farrell, 2011; Saricoban, 1999; Underwood, 1989).

2. 듣기과정의 모델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중에서 듣기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 가장 잘 알려진 모델로 상향식 모델(bottom-up model), 하향식 모델(top-down model), 그리고 상호작용 모델(interactive model)이 있다(Flowerdew & Miller, 2005). 상향식 모델이란 음성 메시지의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출발하여 이해의 기능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향식모델은 전체의 문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간다. 상호 작용적 모델이란

듣기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모델이 통합된 것으로 두 방법이 동시에 작동된다는 주장이다.

L2/FL 학습자들의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의 이해를 복합적인 인지 기술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자에 의해 사용된 전략을 분석한 결과, 효과적인 청자는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을 다 사용하여 문장이나 구를 청취할 때는 하향식, 단어를 청취할 때는 상향식으로 양쪽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반면에 초보자는 언어해독에 있어서 상향식 기술만을 이용하여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O'Malley & Chamot, 1990). 그러나 공식적인 듣기시험에서 L2/FL 학습자들은 하향식 접근법보다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Tsui & Fullilove, 1998).

Flowerdew와 Miller(2005)는 다음과 같이 듣기의 교육적인 동심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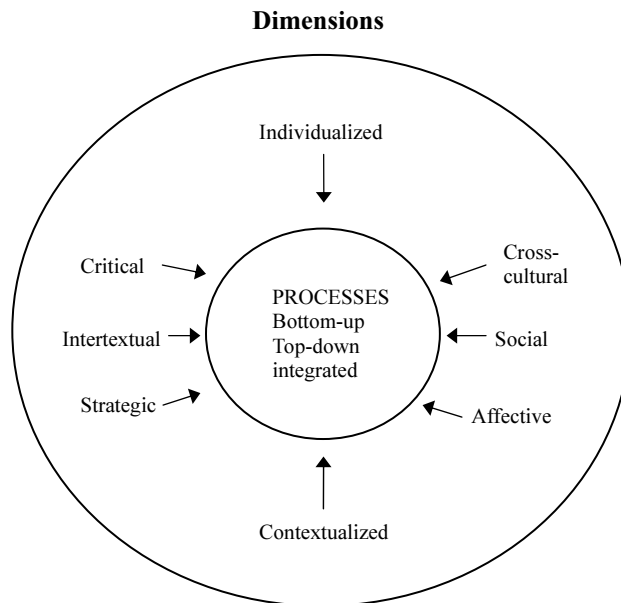


그림 1 듣기의 동심원 모델(Flowerdew와 Miller, 2005, p.86)

위의 모델에서 보듯이 듣기는 개별화되고 비판적이면서 여러 문화가 섞이고 전략적 정서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통적으로 설명된 상향식 하향식의 심리언어학적인 처리과정을 통해 듣기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3. 듣기 교육의 방법론

듣기를 가르칠 때 3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Buck,

1995; Underwood, 1989). 학생들이 듣기에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어휘와 주제에 관련된 배경적 지식을 활성화하는 전단계 듣기(pre-listening), 듣는 동안 화자의 정보나 의미를 이해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본단계 듣기(while-listening), 듣기과제에서 사용된 문법 어휘 추론 등 언어능력을 반영하고 이해나 해석을 하는 후단계 듣기(post-listening)의 과정 등이다. 전단계 듣기에서 들을 내용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 즉 어휘나 문장구조 그리고 질문 미리 보기, 토론 등이 제공되면 이미 준비가 된 주제를 듣게 되므로 학습자는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된다(Chang & Read, 2006; Grgurovic & Hegelheimer, 2007). 본단계 듣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내용을 들을 때 배경적인 스크립트와 추론, 예측, 지식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후단계 듣기에서는 종합적으로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한다.

지난 20년 동안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은 듣기 전략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Chen, 2005; Ehrman, Leaver, & Oxford, 2003; Goh, 2002; Mendelsohn, 1995; O'Malley & Chamot, 1990; Thompson & Rubin, 1996). 그 결과, EFL/ESL 학습자들에게 전략 훈련활동이 듣기교육의 기본이 되었다. 전형적인 전략 훈련활동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략을 인지하도록 하고 사용된 전략을 브레인스토밍해서 모델화시켜 연습시켰다(Ehrman, Leaver & Oxford, 2003; Mendelsohn, 1994).

Murphy(1987)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영어에 능숙한 학습자는 텍스트에 의존하는 낮은 단계의 학습자보다 예측하고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등 융통성 있게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Rost와 Ross(1991)는 특정 듣기 전략을 교수한 후 학습자의 듣기 전략이 증가되고 내용의 이해력이 향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듣기 전략의 학습 후 전략 사용이 증가되었고 영어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듣기 이해력 과제에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자는 어휘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보다 머리 속에 있는 배경지식과 추론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hen(2005)은 EFL 학습자들이 듣기 전략을 배울 때 전략이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왜 특정 전략은 학습되어지지 않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학습자들이 듣기 전략을 배울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정서적인 상태와 듣는 습관, 정보처리능력, 전반적인 영어능력 등 다면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전략훈련을 가르치게 되면 교실에서 실제 언어이해를 가르치는 시간이 줄게 되어 학습효과가 저하된다고 전략기반 접근법을 비판하였다(Littlejohn, 2008; Ridgway, 2000; Renandya & Farrell, 2011). 전략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청을 통한 언어이해를 가르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청을 한 EFL 초등학생들이 체계적인 듣기 전략훈련을 받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고 제시한다(Kiany

& Shiramiry, 2002).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특히, 성인 언어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영어듣기 과목에 등록한 학생으로 전공이 다양했다. 이 강좌는 선택과목이므로 영어능력이 매우 낮은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이수할 당시 토익 점수가 평균 570점이었다. 영어듣기 수업은 학생이 한 반에 30명 미만으로 주·야간 2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도중에 포기하거나 응답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총 4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나이는 평균 22세이고 남학생이 11명 여학생이 31명이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했으나 2학년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사용 국가 거주 경험자는 5명이었다.

듣기 능력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의 성적 분포도에서 83점이 중간 점수이고, 상·하위의 학생수가 83점을 기준으로 비슷해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상위 집단은 20명 하위 집단은 22명 이었다. 두 반 모두 사용하는 교재와 가르치는 방법, 기자재 등 모든 환경이 동일하고 수업 시간만 한 반은 주간에 다른 한 반은 야간에 개설되었다.

2. 연구 과정

이 연구는 2010년 2학기 9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 듣기 수업은 일주일에 1회 3시간 연속 강의로 이루어졌고 교실에는 한 대의 컴퓨터와 스피커, 스크린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영어듣기 과목의 듣기 자료는 출판된 교재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Randall's ESL Cyber Listening Lab (<http://esl-lab.com/index.htm>)의 웹 페이지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주제의 대화, 토익이나 토플에 출제되는 내용, 영어 학습과 관련된 내용, 비디오와 함께 긴 대화, 단어 등이 6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각각의 범주마다 상·중·하 수준별로 소개되어 있다.

교실 수업에서 일반적인 대화, 학문 목적의 내용, 언어 학습, 긴 대화 등 4개의 내용을 중급과 상급의 내용에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로 제시된 듣기 전 활동을 하고, 녹음된 내용을 들은 뒤 이해도를 묻는 연습문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제풀이 후 정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었다. 듣기 후 과정

으로 제시된 듣기 후 연습문제를 그룹으로 토론한 후 전체적으로 토론 내용을 점검했다. 듣기 학습에서 이러한 단계의 설정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강의에 적용했다(Buck, 1995; Underwood, 1989). 문화 배경의 설명과 대본 등은 필요할 때 이용하고 듣기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정보도 보충 설명했다.

교실 수업에서 모든 내용을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대화의 일부분과 6개의 범주 중 2개인 어휘 학습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학생들에게 숙제로 부과하여 2주에 한번씩 10항의 퀴즈를 보게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 시험은 배운 내용과 숙제를 포함해 듣고 쓰는 괄호 넣기, 이해도를 묻는 문제,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대답하는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학기가 시작된 첫째 주에 학생들에게 영어 듣기를 할 때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사용하는 듣기 전략을 그룹으로 토론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듣기가 어려운 이유로 단어로만 들 때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는데 문장에서 그 단어가 발화될 때는 발음의 생략, 축소, 변이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인 영어 능력, 어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미흡 등도 듣기의 장애 요소들이었다. 또한 심리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전략에 대하여도 자신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영어 듣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으로 내용을 여러 번 듣고 대본을 읽거나 어휘를 공부한다고 대답하였다. 텍스트를 들 때 이해하는 접근방법으로 중심생각(main idea)을 찾고 배경 지식을 활용해 추론은 하지만 상향식 하향식 접근법에 대하여는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전략을 가르칠 때, 직접적인 전략 모델과 간접적인 전략 모델 중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전략 기반 접근법을 채택해 가르쳤다(Chen, 2005; Mendelsohn, 1995; Oxford, 1990). 첫 주에는 듣기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전략의 종류를 설명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2회 이상 내용 듣기, 질문문제 미리 보기, 대본 읽기, 메모하기 등을 연습시켰다. 예를 들어, 1회 들었을 때와 2회 듣고 난 후에 이해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대본을 읽은 후 다시 들 때 도움이 되는지 경험하도록 했다. 나아가 2주부터 4주까지는 적극적인 전략 훈련 기간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 전체적인 문맥에서 중심생각 찾기, 추론하기 등의 전략을 가르쳤다. 학생들이 특정 전략을 이용해서 듣고 난 후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듣기 내용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도 토론하였다. 4주간의 듣기 전략 학습 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전략에 익숙해 있다고 판단해 5주째부터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전략의 사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숙제로 부과된 듣기 내용을 이해할 때도 교실 수업에도 배운 전략을 사용하도록 강조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듣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기 초와 학기 말에 2회 조사를 하였다. 수업 첫 시간에 4명의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나누어 영어 듣기 시 내용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쓰는 전략들을 토론하게 하였다. 토론 결과 중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여 설문지의 항목으로 반영했다. 따라서 설문지는 학생들이 토론에서 제시한 요소와 EFL/ESL 학습자들이 겪는 장애요소와 듣기 전략에 대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했다(Chen, 2005; Goh, 2002; Thompson & Rubin, 1996). 설문지의 구성은 영어듣기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능력 항목으로 시작되었다. 이 항목은 5개로 이 듣기과목 이수 후 학습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면 향후 듣기 수업에 도움이 된다. 다음 항목으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할 듣기 능력의 장애 요소 13개와 14개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I-5를 제외하고 I번에서 III번까지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동일한 문장을 반복 사용하였다. 학기 초와 학기 말의 2회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학습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교재로 쓴 웹 페이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또한 설문지의 항목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된 부가적인 학생들의 설명과 경험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학기 말에 두 집단의 학생들 중에서 각각 상·하 2명씩 총 8명을 선발하여 인터뷰하였다. 수준 별로 학생을 선택한 것은 학생의 영어 듣기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내용은 주로 전략에 대한 것으로, 이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전략을 사용했는가? 듣기 전략을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전략을 염두에 두고 듣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전략을 사용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는가? 등이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답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이 곳에서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통계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관련 문항에서 활용하였다.

4. 연구 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이 각각 0.628와 0.735 (학기 초와 학기 말 영어듣기에 대한 자신의 능력), 0.688와 0.840 (학기 초와 학기 말 영어듣기의 장애 요소), 0.732와 0.709 (학기 초와 학기 말 영어듣기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나타나 0.6의 기준 값을 적용했을 때, 수용 가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p < 0.1$ 을 사용한 경

우 따로 표기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영어듣기에 대한 자신의 능력, 듣기의 장애 요소들, 듣기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학생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paired t-test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듣기 능력에 대한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일반적 능력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기 초와 학기 말 듣기에 대한 자기 평가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1) 문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정도를 측정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성적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모두 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2) 영어 듣기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항목에서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성적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모두 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3) 어휘와 4) 문장구조에 대하여도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 평균 점수가 응답자 전체와 성적 상위 및 하위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한 학기 듣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감도 향상되었고 어휘, 문장구조, 문맥의 이해에도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5) 이 듣기 과목을 들으면 영어가 향상될 것이라라는 학기 초 질문에 대한 응답과 이 듣기 과목을 듣고 난 후 영어가 향상되었다라는 학기 말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에서는 응답자 전체와 성적 상위 및 하위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기 초에 학생들은 듣기 과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고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영어 듣기능력에 대한 학기 초 학기말 자기 평가

항목	구분	학기 초 Mean (SD)	학기 말 Mean (SD)	t
1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체	3.00 (0.85)	3.86 (0.71)	-7.39**
	상위	3.30 (0.73)	4.05 (0.68)	-5.25**
	하위	2.73 (0.88)	3.68 (0.71)	-5.30**
2 영어를 듣는데 자신감이 있다	전체	2.74 (0.82)	3.50 (0.83)	-8.56**
	상위	2.90 (0.91)	3.80 (0.83)	-7.28**
	하위	2.59 (0.73)	3.23 (0.75)	-5.13**

	전체	2.81 (0.89)	3.69 (0.81)	-6.85**
3 어휘를 잘 알고 있다	상위	2.80 (1.00)	3.75 (0.71)	-7.02**
	하위	2.82 (0.79)	3.64 (0.90)	-3.81**
	전체	3.05 (1.01)	3.50 (0.89)	-4.15**
4 문장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상위	3.20 (0.83)	3.60 (0.75)	-3.55**
	하위	2.91 (1.15)	3.41 (1.00)	-2.73**
	전체	4.24 (0.65)	4.29 (0.74)	-0.38
5 듣기 과목을 들으면 영어가 향상될 것 같다 (향상되었다)	상위	4.60 (0.50)	4.55 (0.60)	0.43
	하위	3.91 (0.61)	4.05 (0.78)	-0.64

** p < 0.05

2. 듣기능력의 장애 요소에 대한 학기 초와 학기 말 응답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가 인식하는 영어 듣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표 2에 제시하였다. 2) 빠른 속도의 speech, 4) 듣기에 집중하지 못함, 6)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림, 7) 배경지식 활용의 어려움, 8) 어휘능력의 부족, 11) 듣기에 대한 걱정 등의 심리적인 부담감 항목에서 응답자 전체 및 성적 상위, 하위 집단 모두 학기 초 평균값에 비해 학기 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듣기 학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 불명확한 발음의 speech의 경우 성적 상위 집단에서는 학기 초 평균값 4.15점에 비해 학기 말 평균값은 3.80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성적 하위 집단의 학기 초와 학기 말 평균값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 단어는 아는데 그 문장의 의미를 모른다는 항목의 경우 성적 상위 집단에서는 학기 초 평균값이 3.25점 이었는데 학기 말 평균값이 2.80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성적 하위 집단의 학기 초와 학기 말 평균값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두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하위 집단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익숙하지 않은 액센트의 speech, 9)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 10) 일반적인 영어능력의 부족, 12) 주체가 익숙하지 않음, 13) 듣기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름의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의 학기 초와 학기 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 3) 익숙하지 않은 액센트의 speech, 9)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부족, 13) 듣기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름의 항목에서는 성적 하위 집단의 학기 초와 학기 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성적 상위 집단의 학기 초와 학기 말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향

목에서는 성적 상위 집단보다 하위 집단이 듣기 수업에서 진전이 있다고 대답했다.

표 2

듣기능력에서 장애 요인들의 학기 초와 학기말 비교

번호	항목	학기 초 Mean (SD)	학기 말 Mean (SD)	t	
1	Speech의 성질	전체	3.76 (0.87)	3.48 (0.86)	2.46**
	- 불명확한 발음	상위	4.15 (0.74)	3.80 (0.69)	1.92*
	하위	3.41 (0.85)	3.18 (0.90)	1.55	
2	Speech의 성질	전체	4.29 (0.83)	3.74 (0.91)	3.99**
	- 빠른 속도	상위	4.15 (0.98)	3.75 (0.85)	2.02*
	하위	4.41 (0.66)	3.73 (0.98)	3.57**	
3	Speech의 성질	전체	3.69 (0.86)	3.36 (0.93)	2.55**
	- 익숙하지 않은 액센트	상위	3.40 (0.88)	3.25 (0.96)	0.71
	하위	3.95 (0.78)	3.45 (0.91)	3.16**	
4	듣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전체	3.19 (0.99)	2.67 (0.90)	3.59**
	상위	2.95 (0.88)	2.30 (0.80)	2.79**	
	하위	3.41 (1.05)	3.00 (0.87)	2.24**	
5	단어는 아는데 그 문장의 의미를 모른다	전체	3.17 (0.82)	2.90 (0.82)	2.22**
	상위	3.25 (0.78)	2.80 (0.89)	2.93**	
	하위	3.09 (0.86)	3.00 (0.75)	0.52	
6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린다	전체	3.10 (0.98)	2.40 (0.85)	5.51**
	상위	2.90 (0.96)	2.10 (0.78)	5.81**	
	하위	3.27 (0.98)	2.68(0.83)	2.89**	
7	배경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	전체	3.17 (0.96)	2.67 (0.92)	2.97**
	상위	3.30 (0.97)	2.65 (1.13)	2.09*	
	하위	3.05 (0.95)	2.68 (0.71)	2.34**	
8	어휘능력이 부족하다	전체	3.64 (0.82)	3.14 (0.95)	4.03**
	상위	3.50 (0.76)	3.05 (0.99)	2.26**	
	하위	3.77 (0.86)	3.23 (0.92)	3.46**	
9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전체	3.33 (1.07)	2.90 (0.90)	2.87**
	상위	2.95 (0.99)	2.90 (0.96)	0.25	
	하위	3.68 (1.04)	2.91 (0.86)	3.93**	

10 일반적으로 영어능력이 부족하다	전체	3.31 (0.89)	3.05 (0.96)	2.12**
	상위	2.90 (0.78)	2.70 (0.97)	1.71
	하위	3.68 (0.83)	3.36 (0.84)	1.50
11 듣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전체	3.40 (1.12)	2.71 (1.23)	5.14**
	상위	3.10 (1.02)	2.60 (1.23)	2.51**
	하위	3.68 (1.17)	2.82 (1.25)	4.86**
12 주제가 익숙하지 않다	전체	3.00 (1.12)	2.69 (0.95)	2.00*
	상위	3.10 (1.16)	2.80 (1.05)	1.45
	하위	2.91 (1.10)	2.59 (0.85)	1.37
13 듣기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른다	전체	3.36 (0.93)	2.81 (0.99)	3.26**
	상위	3.35 (1.04)	2.90 (1.07)	1.52
	하위	3.36 (0.84)	2.73 (0.93)	3.52**

** $p < 0.05$, * $p < 0.1$

3.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의 학기 초와 학기 말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가 사용하는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의 학기 초와 학기 말 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표 3에 제시하였다. 2) 질문문제를 미리 보고 듣는다, 6) 배경지식을 읽는다, 7) 듣는 동안 메모한다, 8)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9) 어려운 긴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공부한다, 10) 단어에서 시작해 구, 절 등으로 이해한다, 11)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고 구 단위로 이해한다, 12) 전체적인 문맥에서 중심생각을 찾는다, 13) 배경지식과 함께 의미를 추론한다, 14)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신감 등을 갖는다의 항목에서 응답자 전체 및 성적 상위, 하위 집단 모두 학기 초 평균값에 비해 학기 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항목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온 것은 이 듣기 수업이 전략기반 접근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 내용을 두 번 이상 듣는다, 3) scripts(대본)를 읽는다, 4) 어휘해설을 본다 항목에서는 성적 하위 집단에서 학기 초 평균값에 비해 학기 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성적 상위 집단에서 학기 초와 학기 말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적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빈번하게 해당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성적 하위 집단의 경우 수업을 통해 그러한 전략들의 사용법을 익히게 되어 수업 후에 더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5) Follow-up exercise를 한다 항목에서는 성적 하위 집단에서 학기 초와 학기 말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성적 상위 집단에서 학기 초 평균값

에 비해 학기 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학생들은 본문을 학습할 때 이미 내용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의 필요성에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의 학기 초와 학기 말 비교

항목		학기 초 Mean (SD)	학기 말 Mean (SD)	t
1 내용을 두 번 이상 듣는다	전체	4.14 (0.92)	4.33 (0.84)	-1.94*
	상위	4.45 (0.99)	4.50 (0.94)	-0.43
	하위	3.86 (0.77)	4.18 (0.73)	-2.08*
2 질문문제를 미리 보고 듣는다	전체	3.69 (1.17)	4.10 (1.12)	-3.57**
	상위	3.50 (1.35)	3.75 (1.29)	-2.03*
	하위	3.86 (0.99)	4.41 (0.85)	-2.98**
3 Scripts(대본)를 읽는다	전체	3.95 (0.85)	4.05 (0.90)	-2.07**
	상위	4.10 (0.91)	4.15 (0.93)	-1.00
	하위	3.82 (0.79)	3.95 (0.89)	-1.82*
4 어휘해설을 본다	전체	3.79 (0.95)	3.88 (0.96)	-2.07*
	성적 상위	4.05 (0.95)	4.10 (0.78)	-1.00
	성적 하위	3.55 (1.05)	3.68 (1.08)	-1.82*
5 Follow-up exercise를 한다	전체	4.05 (0.88)	3.90 (0.82)	2.21**
	상위	4.40 (0.82)	4.10 (0.78)	2.34**
	하위	3.73 (0.82)	3.73 (0.82)	-2.59
6 배경지식을 읽는다	전체	3.31 (1.00)	3.64 (1.05)	-3.14**
	상위	3.70 (0.97)	4.00 (1.02)	-1.83*
	하위	2.95 (0.89)	3.32 (0.99)	-3.24**
7 듣는 동안 메모한다	전체	3.12 (1.04)	3.64 (1.28)	-4.07**
	상위	3.05 (1.23)	3.50 (1.43)	-2.43**
	하위	3.18 (0.85)	3.77(1.15)	-2.24**
8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전체	3.36 (0.95)	3.88 (1.04)	-4.22**
	상위	3.45 (1.05)	4.10 (1.02)	-3.90**
	하위	3.27 (0.88)	3.68 (1.04)	-3.81**
9 어려운 긴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공부한다	전체	2.57 (0.99)	3.29 (1.08)	-5.19**
	상위	2.55 (1.05)	3.30 (1.12)	-3.47**

	하위	2.59 (0.95)	3.27 (1.07)	-3.81**
10 단어에서 시작해 구, 절 등으로 이해한다	전체	2.64 (0.87)	3.07 (0.89)	-3.60**
	상위	2.40 (0.75)	2.85 (0.81)	-2.93**
	하위	2.86 (0.94)	3.27 (0.93)	-2.24**
11 문장으로 시작해 구, 단어로 이해한다	전체	2.71 (0.86)	3.26 (0.93)	-4.42**
	상위	2.40 (0.68)	3.05 (0.94)	-3.11**
	하위	3.00 (0.92)	3.45 (0.91)	-3.17**
12 전체적인 문맥에서 중심생각을 찾는다	전체	3.79 (0.97)	4.07 (0.99)	-3.10**
	상위	3.75 (1.02)	4.15 (1.04)	-2.37**
	하위	3.82 (0.95)	4.00 (0.97)	-2.16**
13 배경지식과 함께 의미를 추론한다	전체	3.40 (0.96)	3.81 (0.96)	-3.94**
	상위	3.70 (0.97)	4.05 (0.94)	-2.33**
	하위	3.14 (0.88)	3.59 (0.95)	-3.17**
14 긍정적인 사고, 자신감 등을 갖는다	전체	3.21 (0.97)	3.90 (1.03)	-4.99**
	상위	3.15 (0.93)	3.90 (0.91)	-3.94**
	하위	3.27 (1.03)	3.91 (1.15)	-3.13**

** $p < 0.05$, * $p < 0.1$

4. 논의

1) 분석 결과의 논의

응답자의 분석 결과 첫째, 표 1의 1번에서 4번까지의 항목에서 보여지듯이 학기 초와 학기 말을 비교해서 보면, 학생들은 영어 듣기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성적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영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모든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영어 과목보다 듣기만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로 듣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자신의 듣기 능력에 자신감이 생겼고, 특히 어휘 학습의 경우 퀴즈를 본 것이 어휘 향상뿐만 아니라 듣기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의 5번 영어가 향상될 것 같다는 항목을 보면 성적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에 비하여 듣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하위 집단은 상위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대도 낮았고 성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1에서 4까지의 자기 평가에서는 응답의 평균이 학기 초에 높지 않았는데, 5번의

듣기 과목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듣기 능력은 높지 않으나 듣기 과목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학기 초부터 높았기에 학기말의 향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표 2에서 제시되었듯이 듣기의 장애요소에 대한 학기 초와 학기 말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분석 결과에서 장애 요소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빠른 속도의 *speech(2-2)*, 듣기에 집중하지 못함(2-4),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림(2-6), 주제가 익숙하지 않다 (2-12) 등에서 듣기 학습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비교해 보면 불명확한 발음(표 2-1)의 경우 성적 상위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 집단에서 발전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익숙하니 않은 액센트(2-3)에서는 성적 상위 집단에서 유의미 하지 않았다. 한 학기 동안 많은 듣기 학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어려워하고 학습효과가 없었음을 보여 주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문장에서 발음될 때 옆의 단어와 함께 쓰이면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변형되므로 문장의 의미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빠른 대화 내용을 들을 때 화자에 따라 음성의 특색이 다르고 불명확한 발음이나 생략 등이 장애요소가 되므로 음운론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단어를 아는데 그 문장의 의미를 모른다(2-5)에서도 하위 집단은 진전이 없었다. 특히 성적 하위 학생들은 단어는 단편적인 학습으로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와 함께 쓰여 문법 관계를 이해해야 할 때 여전히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영어능력의 부족(2-10), 듣기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른다(2-13)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가 어려움이 다소 극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성적 상위의 학생들이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항목(표 2-9)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위권의 학생들은 하위의 학생들보다 영어 능력이 높고, 이미 문장구조의 이해력도 학생들은 스스로가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듣기 과목이 내용 중심의 의미 파악에 중점적인 교육이었고 수업 시간에 문장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은 것도 학생들의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된다. 듣기 전략(표 2-13)에서는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성적 상위 집단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발전되지 않았다.

셋째, 표 3의 듣기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의 학기 초와 학기 말의 비교에서 질문문제를 미리 보기(3-2), 배경지식을 읽는다(3-6), 메모하기(3-7) 등 항목에서 성적 상위 하위 그룹 모두에서 전반적인 진전이 있었다.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이와같이 긍정적인 응답이 도출된 것은 전략기반 학습의 영향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2회 이상 듣고(3-1), 대본을 읽는 것(3-3), 어휘 해설을 본다(3-4)는 항목에서 성적 하위 집단은 향상되었으나 상위 집단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도출된 것은 이 과목을 택하기 전부터 그러한 전략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성적 상위 학생들은 토익 성적 향상을 위해 듣기 문제를 공부하거나 수업 시간에 내용을 들을 때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고 이 과목에서 빈도를 높여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Follow-up exercise(3-5)를 한다는 항목에서는 성적 상위와 하위 집단 모두에서 전략 사용에서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였다. 수업 후 follow-up exercise에 덜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 이해 전략의 상향식,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해서 듣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나 학기 말에 여전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인터뷰에 응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향식 하향식 접근법의 이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전략 사용을 너무 인식하다가 들은 내용을 잊어버려서 당황하기도 하고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Lawsuit Settlement”라는 텍스트로 된 주제의 내용을 하향식 접근법의 전략을 사용해서 이해하도록 교수하면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을 들을 때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하향식 전략을 써야한다고 의식해서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대답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듣기의 상향식 하향식 전략에 대한 교육과 학생들의 훈련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듣기 전략 사용이 영어 듣기 능력향상에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가 있다(Chang & Read, 2006; Chen, 2005).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학습전략의 의식적인 정신적 활동을 요구한다. 그 기술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전략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때 어떤 요소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에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변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설문지와 인터뷰의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한 학기의 학습 효과로 학생들은 장애 요소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전략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영어 듣기에서 겪는 장애요소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학기 초에 비하여 학기말에 어려움이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화자의 빠른 발음, 발음의 축약 등으로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파악에 실패하는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발음과 다양한 액센트 등을 여러 상황의 문맥 속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듣기도 영어의 일반적인 기술 능력, 어휘 능력, 문장구조를 파악하는 문법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에서도 학기 초와 학기말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대본 보기, 배경지식 읽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기 같은 전략들은 학기 초부터 잘 알고 있었고 듣기 수업에서 더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듣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향식 하향식 모델의 사용이 진전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머리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배우기 어려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습득하기 어려운 전략 등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교수와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논의의 자료가 학생들의 인식이나 느낌에 의존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의 학기 초와 학기 성적을 중심으로 전략 학습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도 듣기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Buck, G. (1995). How to become a good listening teacher. In D. J. Mendelsohn & J. Rubin (Eds.), *A guide for the teaching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pp. 113-131). San Diego: Dominie Press.
- Chang, A. C. S., & Read, J. (2006). The effects of listening support on the listening performance of EFL Learners. *TESOL Quarterly*, 40(2), 375-397.
- Chen, Y. (2005). Barriers to acquiring listening strategies for EFL learners and their pedagogical implications. *TESL-EJ*, 8(4). Retrieved June 1,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tesl-ej.org/wordpress/issues/volume8/ej42/ej42a1/>.
- Cook, V. (2001).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Edward Arnold.
- Ehrman, M. E., Leaver, B. L., & Oxford, R. L. (2003). A brief overview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System*, 31, 313-330.
- Flowerdew, J., & Miller, L. (2005). *Second language listen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h, C. C. M. (2002). Exploring listening comprehension tactics and their interaction patterns. *System*, 30, 185-206.
- Grgurovic, M., & Hegelheimer, V. (2007). Help options and multimedia listening: Students' use of subtitles and the transcript.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1(1), 45-68.
- Kiany, G. R., & Shiramiry, E. (2002). The effect of frequent dictation o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of elementary EFL learners. *TESL Canada Journal*, 20(1), 57-63.

- Littlejohn, A. (2008). Digging deeper: Learners' disposition and strategy use. In G. Cane (Ed.),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 Teaching* (pp. 68-81). Singapore: Regional Language Center.
- Mendelsohn, D. J. (1994). *Learning to listen: A strategy-based approach for the second language learner*. San Diego: Dominic Press.
- Mendelsohn, D. J. (1995). Applying learning strategies in the second/foreign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In D. J. Mendelsohn & J. Rubin (Eds.), *A guide for the teaching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pp. 186-221). SanDiego: Dominic Press.
- Murphy, J. M. (1987). The listening strategie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llege students. *Research & Teaching in Developmental Education*, 4(1), 27-46.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Heinle & Heinle.
- Randalls, D. (2010). *ESL cyber listening lab*.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esl-lab.com/>.
- Renandya, W. A., & Farrell, T. S. C. (2011). "Teacher, the tape is too fast!" Extensive listening in ELT. *ELT Journal*, 65(1), 52-59.
- Ridgway, T. (2000). Listening strategies – I beg your pardon? *ELT Journal*, 54(2), 179-185.
- Rost, M., & Ross, S. (1991). Learner strategies in interaction: Typology and teachability. *Language Learning*, 41, 235-273.
- Saricoban, A. (1999). The teaching of listening. *The Internet TESL Journal*, 5(12). Retrieved June 1,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iteslj.org/Articles/Saricoban-Listening.html>.
- Thompson, I., & Rubin, J. (1996). Can strategy instruction improve listening comprehension? *Foreign Language Annals*, 29(3), 331-342.
- Tsui, A. B. M., & Fullilove, J. (1998). Bottom-up or top-down processing as a discriminator of L2 listening performance. *Applied Linguistics*, 19(9), 432-451.
-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Harlow: Longman.

부록
영어 듣기 수업에 관한 연구

날짜: 2010년 월 일 <학기 초, 학기 말> 일련번호:

I. 기본배경사항

1. 나이: 만 _____
2. 성별: 남, 여
3. 학년: _____
4. 전공: _____
5. 영어 사용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거주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다음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숫자를 표기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I. 듣기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1.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영어를 듣는데 자신감이 있다
3. 어휘를 잘 알고 있다
4. 문장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5. 이 듣기 과목을 들으면 영어가 향상될 것 같다(되었다)

II. 듣기의 장애요소 (어려운 이유)

A. 정보처리의 어려움

1. Speech의 성질 - 불명확한 발음
2. Speech의 성질 - 빠른 속도
3. Speech의 성질 - 익숙하지 않은 억센트
4. 듣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5. 단어는 아는데 그 문장의 의미를 모른다
6.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린다
7. 배경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

B. 영어 능력의 어려움

8. 어휘능력이 부족하다
9.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10. 일반적으로 영어능력이 부족하다

C. 정서적인 어려움

11. 듣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D. 일반적이 어려움

12. 주제가 익숙하지 않다
13. 듣기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른다

III. 듣기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1. 내용을 두 번 이상 듣는다
2. 질문문제를 미리 보고 듣는다
3. Scripts(대본)를 읽는다
4. 어휘해설을 본다
5. Follow-up exercise를 한다
6. 배경지식을 읽는다.
7. 듣는 동안 메모한다.
8.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9. 어려운 긴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공부한다
10. 단어에서 시작해 구, 절 등으로 이해한다
11. 문장으로 시작해 구, 단어로 이해한다
12. 전체적인 문맥에서 main idea를 찾는다
- 13 배경지식과 함께 의미를 추론한다
14. 긍정적인 사고, 자신감 등을 갖는다

IV. 웹 페이지에 있는 항목 중 듣기 이해에 도움을 준 것은?

1. Pre-listening exercises
2. Listening exercises
3. Vocabulary activities
4. Post-listening exercises
5. Scripts
6. Glossary
7. Cultural notes

V. 학습자료와 평가

1. 교재로 사용한 Landall의 웹 페이지를 만족합니까?
2. 듣기 과목 최종 점수: _____ 최근의 토익 점수 _____

과목 이수 후 영어 듣기 장애 요소와 전략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변화 209

예시언어(Examples in) :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 Secondary/Tertiary

신희재

성결대학교 교양학부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 467-8920

Email: hjhashin@sungkyul.ac.kr

Received 15 December 2011

Revised 5 February 2012

Accepted 15 February 2012